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63

요한계시록에서
(1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남편

성경: 계 21:2, 9-10, 22:17 상

I.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최종 완결이다. 거룩한 성은 단체적인 인격이며, 이 단체적인 인격은 부부—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다. 이것은 그 영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다—계 22:17 상

A. 성경의 주제는 우주적인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남성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여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이다—창 2:21-24, 사 54: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

B. 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솔람미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계시하는데, 솔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상징이다—6:13, 계 21:2, 9-10, 22:17 상.

1. ‘솔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이제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a. 솔로몬 왕이 시골 소녀에게 구애하여 그녀를 그의 왕비, 그의 복사판이 되게 하려고 시골 청년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구애하시어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마 9:15, 계 19:7, 비교 시 45:1-3, 9, 13-14.

b.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애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을 계시하고, 이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우리와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성하게 됨으로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전 1:2, 아 1:1-8, 비교 고후 2:10, 출 33:11, 14, 롬 8:4, 6, 고전 2:15.

2. 솔람미는 하나님의 눈에 두 무리 또는 두 군대와 같다—아 6:13.

a. 히브리어에서 ‘두 무리’라는 구(句)는 ‘마하나임’이다.

b.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고 그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창 32:1-2.

c. 야곱이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그는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무리 또는 두 군대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고 강한 증거를 지니는 것을 가리킨다—7 절.

d.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거인들’을 원치 않으시고 다만 연약한 이들, 보다 약한 이들,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고후 11:29, 롬 9:16.

e. 자신 안에서 강한 이들은 모두 자격이 없을 것이다. 이기는 이들로 계수될 이들은 더 약한 이들,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이들일 것이다—계 3:8, 벧 5:5, 신 32:30, 겔 4:9-12, 롬 16:20.

C. 그리스도의 약혼의 날과 결혼 생활은 교회시대와 왕국시대와 영원시대를 포함한다.

1.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했다—고후 11:2-3.

2. 결혼식날은 천년 왕국의 시대일 것이다—계 19:7.
 3.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21:2, 9-10.
- D. 새 예루살렘은 인성에 따르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어린양의 사람 부인이며,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된 선민의 (그분의 인간 생명과 본성을 지니신 그분의 완결된 체현에 있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신) 신성한 남편이다.

II.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야 한다—살전 3:13.

- A. 마음은 사람의 내적 부분의 집합체이며, 사람의 주요 대표이며, 집행 대리인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행 11:23, 요 14:1, 16:22)에 우리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진 구성체이다.
- B.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와 유기적이고 본질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1.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만 역사한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다면 영은 그 안에 감금되고 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마 5:3, 8, 시 78:8, 엡 3:16-17.
 2. 혼은 그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활동중인 인격이다. 마음은 우리 온 존재의 집행 대리인, 집행 위원이다.
 3. 우리의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은 우리의 육체의 심장을 의지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곧 우리의 활동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심리적인 심장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 C.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장애물 없이 역사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이를 수가 없다.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의해 조절된다—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1.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주님과 관계 둘 다에서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비교 딤후 4:10, 마 13:3-9, 18-23.
 2. 타고난 사람 생명에 따라서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쉽게 변하고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렘 17:9-10, 13:23.
 3. 우리의 마음은 비난받을 만하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이다—시 57:7, 108:1, 112:7.
 4.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새로워 지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데, 이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겔 36:26, 고후 4:16.
 5.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분별된 상태로, 하나님께 점유되고,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 견고해지고, 건축되어야 한다—딤후 3:5, 롬 6:19, 22.
- D.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내적인 운행하심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히 2:11, 시 139:23-24.
1.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 원하신다—히 12:6-7, 11:6-7.
 - a.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신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겔 36:26.
 - b. 부드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복종적이며 순종적이며 목이 뻗뻗하거나 반역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비교 출 32:9.
 - c.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은 마음이다—마 13:4.
 - d.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시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분은 그분의 손을 사용하시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후 5:14, 4:16-18, 히 11:6-7, 비교 렘 48:11.

2.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 원하신다.
 - a.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이나 경향이나 갈망이 없는 것이다—시 73:25, 렘 32:39.
 - b.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단일하여 그분께 범죄하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시 86:11 하.
 - c.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며, 우리에게 다른 어떤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마 5:8.
 - d.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해야 한다—딤후 2:22, 딤펢전 1:5, 시 73:1.
3.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 원하신다.
 - a. 사랑스러운 마음은 그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그분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며 사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마음이다—42:1-2, 아 1:1-4.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님을 향해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후 3:16, 영한동번 찬송가 546 장, 547 장.
 - c.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영적인 체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비교 엡 6:24.
 - d.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갖고 말하도록 우리를 자격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장비한다.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요 21:15-17, 마 26:6-13, 28:18-20.
4.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기 원하신다.
 - a. 화평한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양심에 거리낌과 유죄판결과 비난이 없는 마음이다—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 b.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자백하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씻으심을 받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요일 1:7, 9, 딤펢전 1:5.
 - c.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참여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어, 우리를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시며 모든 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평을 주시는 것이다—빌 4:6-7, 살전 5:23, 살후 3:16.
 - d.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여 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골 3:13-15.
- E.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됨으로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견고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계 21:2, 요일 5:11-12, 뵤후 1:4.